

# 중학생의 자의식이 기술·가정 교과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중요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은희 · 이상주<sup>\*,\*</sup>

대구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시간강사 · Al Yamamah University 조교수<sup>\*,\*</sup>

## The Influence of Juvenile Self-consciousness on the Importance of Unit 'Clothing and self-express' in Technology·Home Economics Curriculu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Eun-Hee Park · Sang-Joo Lee<sup>\*,\*</sup>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Daegu University

Assistant Prof.,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Al Yamamah University, Kingdoms of Saudi Arabia<sup>\*,\*</sup>

(2016. 1. 17 접수; 2016. 2. 29 수정; 2016. 3. 2 채택)

### 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juvenile self-consciousness on the importance of unit 'clothing and self-express' in technology·home economics curriculu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244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Deagu metropolitan City. Frequenc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chi^2$ -test were used for data analysis.

Our findings are as follows. Self-consciousness had factors as privately and socially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The factors of the importance of unit 'Clothing and self-express' were clothing, self-express and excellence in traditional clothing.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had factors as appearance management, plastic surgery interest, diet importance, health focus and eating habit. Self-consciousness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factors of the importance of unit 'Clothing and self-express', and self-consciousness on factors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e differences by gender of middle students was examined in clothing and textile interest, clothing and textile unit interest and knowledge acquisition route.

*Key Words:* Self-consciousness(자의식), Importance of unit 'Clothing and self-express'('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중요도),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외모관리행동)

## I. 서론

청소년들은 자기 측면에서 자신을 바라보기도 하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서 자신을 보기도 한다. 또한 사회에서 적응해 나갈 때

직면하는 불안감을 개인적으로 가지게 되며 이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자기에 대한 이해와 사고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처럼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내적 자아와 외적자아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외모이다. 외모는 타인에 대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며, 그 사람의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 등을 판단하게 하는 상징적 역할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완하고 과시적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화장을 하거나 의복과 장신구를 이용하여 치장하는데 높은 관심을 가지며 심지어는 취약한 신체부위를 성형하기도 한다(이은희, 2007). 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미의 기준 속에서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지각하고, 그에 따른 결점이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된다(Cruickshank, 1971). 문혜경과 유태순(2003)은 개인은 이상적인 모습이 되기 위해 의복이나 화장과 같은 외모 가꾸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한 행동의 결과는 다시 사회적 비교과정을 통해 평가되어 서로 상관관계를 맺게 된다. 이처럼 선택한 의복과 화장은 자기외모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실제 외모향상의 수단이 되어 기대하는 외모를 창조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외모관리는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하기 위해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행동으로 사회적 맥락 안에서 그 중요성이 나타난다(Kaiser, 1997). 특히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활동성이 외모 관심 및 신체만족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의식함으로써 외모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그 결과 자신의 신체에 자신감을 지님으로 사회생활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지닌다(이명희, 2003). 청소년들이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타인의 평가를 통해 자신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높아 또래집단을 동조하게 된다. 이때 이들은 자신의 내면과 주변 환경에 따라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해 의복, 화장, 헤어, 피부, 신체관리 등 외모관리행동을 다르게 할 것이다.

기술·가정은 실생활 적용을 위주로 하는 교과로서 학생들이 직접적인 체험 학습을 통하여 개념과 원리를 잘 이해하고 의사결정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실천 교과이다(박은희, 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은 교과 이론에 근거하여 실험·실습, 조사, 토의 등 체험활동 중심으로 구성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기술·가정 수업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의식은 자신에 대한 동기나 목표 및 내적 감정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자기위주로 의복을 착용하거나 의복을 기분전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상호관계의 증가로 인하여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며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므로 자신의 표현인 의복에 관심을 보이고 타인을 의식하여 의복을 착용하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심정은, 고애란, 1997). 이에 따라 기술·가정 교과 의생활 영역의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을 학습하는데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자의식에 따라 학습의 중요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기술·가정 교과 의생활 영역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의생활 교육 내용분석(성화경, 1994: 박순자, 2007)과 의생활 영역에 대한 선호도, 필요도, 흥미도, 활용도(강미향, 오경화, 2006: 권혜림, 2008: 김태희 외, 2010: 장세미, 2008: 안효정, 2010)에 관한 연구가 있다. 하지만 중학생들의 심리적 변수와 학습 수업 관련된 내용 및 행동적 변수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관심이 높고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의 청소년은 옷차림을 통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자 할 때 자신의 내면을 반성하고 점검하는 내적자아와 자신의 주변 환경에 따라 자신을 보는 공적자아에 따라 기술·가정 교과 수업 내용의 중요도와 외모관리행동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자의식의 하위변인이 기술·가정 교과 의생활 영역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중요도와 외모관리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있는 시기의 청소년들의 자의식을 살펴본 후 자의식에 따른 기술·가정 교과 수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자의식

자의식은 자신에 대한 관심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방향성으로 자신의 내부에 집중하느냐 외부에 집중하느냐에 따른 것이다. Fenigstein et al. (1975)은 자의의식을 개인의 특질 차원으로 개념화시켰으며 사적 자의의식(private self-consciousness)과 공적 자의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 사회적 불안(social anxiety)으로 구분하였다. 즉 공적 자의의식은 사회적 대상으로 자아를 인식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의복착용과 태도에 관심을 갖는 특성이며, 사적 자의의식은 자아의 개인적인 은밀한 면으로 자신에 대한 동기과 목표에 대해 반성적이며 자기 자신의 신체적 과정과 기분을 점검하고 자신에 대한 공상과 관심을 갖는 특성을 나타낸다(Fenigstein et al., 1975). 사적 자의의식은 사적인 내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기 쉬운 경향으로 사적 자의의식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태도, 자신의 사고에 더 신경을 쓰고, 공적 자의의식은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기를 의식하는 경향으로서 인상형성, 자기표현, 예의, 자기현시 등과 관련되며, 공적자의의식이 강한 사람은 타인으로부터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중요시한다. 사회적 불안은 대인관계나 여러 사람 앞에서 불안해하고 적절히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외적 환경에서의 부끄러움이나 초조함과 관련이 있다(류현혜, 유태순, 2007).

물질적 풍요와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현시대의 청소년들은 좋고 싫음이 분명하고 감성이나 자기표현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회적 인정을 받기위한 수단으로 외모, 의복, 소유물 등을 사용하며 유행을 추종하고 외모의 매력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이은희, 2006). 이들은 또래집단에서 유행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인정받으며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듯 주변의 또래 집단을 통해 자기 자신을 평가하게 되므로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 관심의 대상을 자신에게 두고자 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멋진 외모를 연출하려는 의도를 자기만족이나 자신감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Miller et al. (1982)는 공적 자의의식이 높은 여대생들은 의복변인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의복을 통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이미지에 부합하는 공적이미지를 만들

으로써 의복을 사회적 불안을 줄이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Smith et al. (1983)은 공적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에 의해 평가되는 것에 민감하고 자신의 사회적 측면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심정은과 고애란(1997)은 청소년기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가로 타인에게 비추어지는 자신의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며 의복을 착용하려고 하였으며, 타인으로 부터 인정받기 위해 혹은 타인의 주의를 끌기 위해 의복의 과시적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변의 또래 집단을 통해 자신을 평가하고 타인의 반응에 민감한 공적자의의식이 높은 청소년은 멋진 외모를 연출하기 위해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기술·가정교과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 수업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며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외모관리행동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 2. 기술·가정 교과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중요도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기술·가정① 의 생활 영역은 대단원 '청소년의 생활', 중단원 '옷차림과 자기표현'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용 요소는 개성을 표현하는 상황에 맞는 옷차림 및 의복 예절 인식을 통하여 존중과 배려의 예의 갖춘 옷차림, 전통 옷차림의 우수성과 생활 문화적 가치, 전통의복문화 계승 등을 다루고 있다. 학습 내용별 성취기준은 옷차림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때와 장소, 상황을 고려한 옷차림을 통해 의복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여 개인적·사회적으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실천하며, 우리나라 전통 옷차림의 우수성 및 생활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한복 옷차림을 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또한 중학교 기술·가정② 의생활 영역은 대단원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 중단원 '친환경적 의생활과 옷 고쳐입기'로 구성되었으며 내용요소는 의복 마련 및 세탁과 보관, 수선,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적 의복소비생활 실천, 옷을 만들기를 통해 의복 구성 원리, 간단한 복식생활용품 만들기 등을 다루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청소년기에는 의복과 외모를 통해 자신을 나

타내고자 하므로 이들의 의복행동은 또래친구로부터 승인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므로 의복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한준상 외, 2000). Steinberg(1993)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의 인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인관계 기술 이외에도 유행을 선도하는 옷차림과 신체적 매력의 중요하게 제시되었다. 의복은 신체의 연장으로서 인간의 성격형성,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청소년기에 그 영향이 더욱 크므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복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다(이애경 외, 2006). 이렇듯 중학교 교과목 중 기술·가정 의생활 단원이 청소년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권혜림(2008)은 대구·경북지역의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의생활 영역 선호도에서 47.0% 중에서 20.8%가 '의복의 마련과 관리' 단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학생들이 의생활 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장세미(2008)는 학생들의 의생활 영역 교육내용에 대한 필요도와 실천의식 간의 관계에서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의 필요성이 높을수록 실천의식이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의복의 손질과 보관의 필요도가 높을수록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 의복의 손질과 보관, 의복마련과 구매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강미향과 오경화(2006)는 의생활 단원의 교과 내용에서 학생들의 필요도가 높은 소품 만들기, 패션 악세서리 만들기, 패션 관련 직업, 의복의 유행과 패션 따라잡기 등 청소년기의 관심이 높은 내용으로 교과 내용을 첨가 또는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태희 외(2010)는 남녀 중학생의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기술·가정 교과 내의 의생활 영역의 흥미도도 낮았지만, 그 중 옷을 입을 방법이나 디자인, 의복을 구입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생활 영역의 학습 요구에서는 코디네이션 항목에 대해 가장 높은 학습 요구를 보였다고 하였다. 안효정(2010)은 200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의생활 영역에 대한 필요도는 때와 장소, 상황에 따른 옷차림과 나에게 어울리는 색상에서 점수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 청소년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고, 옷을 이용하여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데 의생활의 필요를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중학생들은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인식은 낮았지만 의생활 영역의 옷차림, 코디네이션, 패션악세서리 만들기 등 패션과 관련된 내용에 관심을 보였다.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기술·가정 교과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중요도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 3. 외모관리행동

청소년들은 자신의 용모나 행동이 타인의 관심을 끌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 및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리라고 믿는 자아중심적 성향을 나타내므로(전재훈, 하지수, 2008) 외모에 관심이 많고 또한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동시에 느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모 가꾸기에 열중하며 사회구성원으로써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도구로 화장, 염색, 성형, 다이어트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동료집단의 구성원들과 비슷하게 보일 때 소속감을 느끼며 사회적 승인을 얻고 자신감을 강화시키게 되므로 이 시기에 있어 의복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의복에 대한 동료집단의 승인이다(Hurlock, 1978). 즉, 동조란 심리적 압박의 결과를 통해 집단의 기대에 따라 신념이나 행동이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청소년은 사회화 과정에서 또래집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Kaiser(1997)는 이상적인 신체모습과 자신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피부미용, 성형수술, 체중조절과 같은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고 언급함으로써, 신체만족을 위한 수단으로써 다양한 외모 관리행동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은실(2011)은 20-40대 성인여성은 연령이 낮고 신체매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의복이나 화장, 피부관리, 헤어연출과 같은 비교적 적극적 외모관리를 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최나영(2012)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자신감이나 위축감이 생기고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와 자신의 외모의 차이를 좁히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것을 의복을 통

하여 극복하려하기 때문에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였다. Pertschuk(1991)는 미용수술환자의 외적 동기는 외모의 향상을 통해 이성 관계를 좋게 하는 것과 같은 대인관계의 증진, 승진과 같은 사회적 성취를 얻는 것이고 내적 동기는 자존심과 자기상의 개선, 전체적 주체성의 재구성, 내적 우울의 해소 등으로 제시하였다. 최미혜 외(2009)는 여러 번의 미용수술을 하게 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존재하지만 공적자기의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복이 인간행동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연령층에서나 중요하지만 특히 신체의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에는 구체적인 의복과 외모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므로 이들의 의복행동은 또래친구로부터 승인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므로 의복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한준상 외, 2000).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문제

1. 중학생들의 자의식, 기술·가정 교과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중요도 및 외모관리행동의 요인을 분석한다.
2. 중학생들의 자의식이 기술·가정 교과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3. 중학생들의 자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4. 중학생들의 의생활 실천행동을 파악한다.

####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가정① 교과 의생활 영역은 대단원 ‘청소년의 생활’ 중단원 ‘옷차림과 자기표현’에 편제되어 있으므로 교과 과정을 이수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13년 10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설문지를 작

성하였다. 본 조사는 2013년 12월 10일 ~ 12월 17일 대구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설문지 265부를 배부하여 실시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244부를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조사대상자는 남학생 86명(35.2%), 여학생 158명(64.8%)이었다.

#### 3. 측정도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의식,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중요도, 외모관리행동의 측정항목들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들을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들은 예비조사를 통해 유효성을 검증한 후 사용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각 개념 항목을 측정하였다.

자의식(self-consciousness)은 자신에 대한 관심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를 의미하며 선행연구(Fenigstein et al, 1975; 박은희, 2015)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중요도(importance of unit ‘Clothing and self-express’)는 기술·가정 의생활 영역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내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의미하며, 2009 개정 교육과정 기술·가정① 교과서(이상혁 외, 2014; 이춘식 외, 2014; 채정현 외, 2014) 대단원 ‘청소년의 생활’ 중단원 ‘옷차림과 자기표현’ 내용을 근거로 하여 연구자가 12문항을 개발하였다.

외모관리행동(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은 자신의 멋진 외모를 가꾸기 위해 행하는 옷차림, 화장, 헤어, 성형, 다이어트, 건강, 식사관리 등을 의미하며 선행연구(박은희, 2015)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23문항을 사용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은 성별이었으며, 의생활 실천행동은 1학기말 전체교과 학업성적, 가정에서 일주일 동안의 의생활 관련활동 시간, 일상생활에서 의생활에 대한 관심정도, 기술·가정 교과에서 의생활 단원에 대한 관심의 정도, 의생활 단원에서 배운 내용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의생활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경로 등에 관한 문항이었다.

SPSS PC+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통계방법은 빈도, 평균, 표준편차,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회귀분석,  $\chi^2$ -test를 사용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 1. 중학생들의 자의식, 기술·가정 교과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 중요도 및 외모관리 행동의 요인분석

중학생들의 자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다. 요인 1은 자신을 이해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으로 “사적자기”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타인에 의해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집을 나오기 직전에 거울을 본다거나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신경을 쓴다는 내용으로 “공적자기”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새로운 상황을 어색해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을 불안해 한다는 내용으로 “사회적 불안”이라 명명하였다. 3개 요인별 신뢰도 확인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요인 1은 .87, 요인 2는 .84, 요인 3은 .73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은 54.67

%였다.

평균에서 보면, 자의식의 사회적 불안(3.67), 공적자기(2.96), 사적자기(2.68)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반성은 자신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아직 청소년들은 자신을 알아가는 단계이므로 평가하여 뉘우치는 것을 깊이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자기에서 평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 불안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은 학년이 높아지면서 사람과의 만남이 복잡해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으로 인해 평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기술·가정 교과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중요도를 살펴보기 위해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다. 요인 1은 때, 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체형과 개성을 파악하여 아름다운 옷차림을 할 수 있다는 교과 내용을 중요하게 인식함을 보여주는 의미로 “옷차림”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다양한 이미지의 옷차림을 통해 창의력을 기를 수 있고 사회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옷차림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교과의 내용을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의미로 “자기표현”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한복의 우수성과 가치를 이해하여 바르게 입을 수 있다는 교과 내용을 중요하게 인식함을 보여주는 내용으

<표 1> 자의식 요인분석

요인	문항	요인 적재값	고유값	누적 분산(%)	Cronbach's $\alpha$ (평균)
사적 자기	나는 항상 나 자신을 이해하려고 한다.	.71	3.93	24.54	.87
	자신에 대해 반성을 많이 한다.	.68			
	자신에 대해 엄밀히 평가해 본다.	.66			
	항상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에 대해 생각한다.	.66			
	어떤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8			
친구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54				
공적 자기	집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거울을 꼭 본다.	.81	2.74	41.63	.84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신경을 쓴다.	.79			
	나의 기분변화에 대해 민감하다.	.66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 생각한다.	.63			
사회적 불안	새로운 상황에서 어색함을 극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76	2.09	54.67	.73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불안하다.	.70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쉽다.(-)	.66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선 긴장이 된다.	.60			

로 “한복 우수성”이라 명명하였다. 3개 요인별 신뢰도 확인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요인 1은 .86, 요인 2는 .87, 요인 3은 .81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67.57%였다.

평균에서 보면,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옷차림(4.05), 자기표현(3.82), 한복우수성(3.68)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요인에서 높게 나타나, 기술·가정 교과 의생활 영역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 내용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의생활 영역의 학습 요구에서 코디네이션 항목에서 학습요구가 높았다고 한 김태희 외(2010)의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의생활 영역 필요도에서 시간, 장소, 상황에 따른 옷차림에서 가장 점수가 높게 나타나 청소년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다고 한 안효정(2010)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중학생들의 외모관리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다. 요인 1은 수시로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색조화장품을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외모가꾸기”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외모

를 향상시키기 위해 성형수술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내용으로 “성형관심”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다이어트를 위해 음식을 먹지 않은 적이 있으며 체중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내용으로 “다이어트중시”라 명명하였다. 요인 4는 건강을 생각하여 보약을 먹거나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내용으로 “건강중시”라 명명하였다. 요인 5는 규칙적인 식습관이 중요하고 아침을 먹는 편이라는 내용으로 “식습관”이라 명명하였다. 5개 요인별 신뢰도 확인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요인 1은 .89, 요인 2는 .88, 요인 3은 .84, 요인 4는 .63, 요인 5는 .51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62.19%였다.

평균에서 보면, 외모관리행동의 식습관(3.98), 외모가꾸기(3.21), 다이어트중시(2.33), 건강중시(2.29), 성형관심(2.21) 순으로 나타났다. 규칙적인 식습관이 중요하며 아침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과 건강을 고려하여 약을 먹거나 음식을 먹는 것에서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즉, 중학생들은 아직까지 성형에 대한 집착을 보이지 않으며 건강을 고려하여 음식을 선택하는

<표 2> 기술·가정 교과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중요도 요인분석

요인	문항	요인 적재값	고유값	누적 분산(%)	Cronbach's $\alpha$ (평균)
옷차림	때와 장소, 상황에 적합한 옷차림을 실천할 수 있다.	.79	3.56	27.38	.86
	자신의 체형과 개성을 파악하여 아름다운 옷차림을 할 수 있다.	.79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을 하여 자신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다.	.76			
	나의 외모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 자신의 개성과 멋을 살려 옷차림을 할 수 있다.	.71 .63			
자기 표현	다양한 이미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옷차림을 통하여 창의력을 기를 수 있다.	.82	3.38	53.34	.87
	개성 있는 옷차림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	.77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올바른 옷차림을 할 수 있다.	.69			
	패션코디네이션과 과정을 통하여 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을 할 수 있다.	.68			
	긍정적인 자아표현을 위해 개성 있는 옷차림을 할 수 있다.	.56			
한복 우수성	우리 옷의 우수성과 가치를 이해하여 바른 한복 차림을 할 수 있다.	.87	1.85	67.57	.81
	전통 옷차림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바르게 입을 수 있다.	.83			

〈표 3〉 외모관리행동 요인분석

요인	문항	요인 적재값	고유값	누적 분산(%)	Cronbach's $\alpha$ (평균)
외모 가꾸기	수시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살펴본다.	.78	5.03	21.88	.89
	남들 앞에 나가기 전에 내 옷차림이 괜찮은지 확인한다.	.72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BB크림, CC크림, 메이크업 베이스, 팩트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71			
	피부관리를 위해 매일 기초화장을 한다.	.70			
	옷을 입을 때 옷장에 있는 다른 옷과 잘 어울리는지 생각해 본다.	.69			
	머리손질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다.	.68			
	평상시 다른 사람들이 입은 옷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다.	.68			
	머리를 자주 드라이하고 다닌다.	.67			
	밖에 나갈 때 반드시 얼굴에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른다.	.65			
피부관리를 위해 세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60				
성형 관심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해 성형수술에 관심이 있다.	.85	3.03	35.05	.88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성형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82			
	성형수술은 신체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 중요하다.	.82			
	연예인들의 매력적인 외모를 보면 성형하고 싶다.	.81			
다이어트중시	다이어트를 위해 음식을 먹지 않은 적이 있다.	.83	2.84	47.40	.84
	날씬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 가끔 다이어트를 하곤 한다.	.82			
	체중이 조금만 변해도 신경을 쓴다.	.82			
	친구가 나의 신체사이즈를 물으면 대답하기 싫다.	.67			
건강 중시	아프지 않아도 가끔 보약을 먹는다.	.77	1.82	55.33	.63
	몸에 좋다는 음식을 골라서 먹는 편이다.	.76			
	정기적으로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먹는다.	.69			
식습관	규칙적인 식습관이 중요하다.	.77	1.58	62.19	.51
	건강을 생각해서 아침은 먹는 편이다.	.72			

경향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은 외모관리 중 성형관리에 점수가 낮게 나타나 거의 관리하지 않는다고 한 위은하(2015)의 연구를 지지한다.

## 2. 중학생들의 자의식이 기술·가정 교과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중요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들의 자의식이 기술·가정 교과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고,  $R^2=0.17$ 로 전체변동 17%의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수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 Variable inflation factor)와 허용치를 살펴보았

며, 일반적으로 분산팽창계수가 10이상이거나 허용치가 0.1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본 분석에서 변수들의 VIF값은 모두 10이하였고, 허용치는 0.1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F=17.65$ ,  $p < .001$ ), 자의식의 사적자기( $\beta = .27$ ,  $p < .001$ ), 공격적자기( $\beta = .23$ ,  $p < .001$ )가 의생활 중요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이해하고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중학생들은 기술·가정 교과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김양진과 강혜원(1992)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



〈표 4〉 자의식이 기술·가정 교과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표준오차	$\beta$	t	VIF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중요도	(상수)	1.772	.115		15.414***	
	사적자기	.28	.07	.27	4.34***	1.16
	공적자기	.20	.05	.23	3.69***	1.17
	사회적불안	-.07	.04	-.10	-1.69	1.03
$R^2=.17$ $F=17.65^{***}$						

\*\*\* $p < .001$

〈표 5〉 자의식이 기술·가정 교과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중요도(종속변수)	자의식(독립변수)	$\beta$	t	F	$R^2$
옷차림	사적자기	.26	4.08***	15.69***	.15
	공적자기	.23	3.62***		
	사회적불안	-.05	-.90		
자기표현	사적자기	.19	2.85**	10.79***	.11
	공적자기	.23	3.49***		
	사회적불안	-.07	-1.07		
한복우수성	사적자기	.25	3.80***	9.85***	.10
	공적자기	.07	1.11		
	사회적불안	-.17	-2.73**		

\*\* $p < .01$ , \*\*\* $p < .001$

한다.

중학생들의 자의식이 기술·가정 교과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의적인 변수와 설명력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자의식의 사적자기와 공적자기는 의생활중요도의 옷차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5%였다. 사적자기와 공적자기가 높은 중학생은 기술·가정 교과 의생활 영역의 옷차림을 중요하다고 여겼다. 즉 사적자의식과 공적자의식이 높은 중학생은 시간, 장소, 상황에 어울릴 수 있는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교과 수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자의식의 사적자기와 공적자기는 의생활중요도의 자기표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1%였다. 사적자기와 공적자기가 높은 중학생은 기술·가정 교과 의생활 영역의 자기표현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즉 개성을 표현하면서 주변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복을 착용하는 것

이 중요하므로 교과 수업시간을 통해 배우려는 의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자의식의 사적자기와 사회적 불안은 의생활중요도의 한복우수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0%였다. 친구들 앞에서 말할 때 불안해하지 않고 주변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중학생은 한복의 우수성을 이해하여 바르게 입으려는 의도를 보였다. 자기목표가 있는 중학생은 한국의 전통복식에 관심을 가지고 한복을 바르게 입는 법을 익히려는 의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이는 불안해하기 보다는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중학생은 한복 입는 것이 생소하지만 저고리 고름을 매고, 치마 입는 법을 학습하여 자신감을 높게 인지한다고 한 박은희(2012)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공적자의식은 또래 친구에 의해 자아를 인식하는 것으로 의복을 착용하였을 때 전체적인 조화를 잘 이루었는지에 관심이 높으므로 교과 수업을 통해 옷차림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적자의식은 자신에 대한 동기와 목표에 대해 반성하는 중학생일수록 기술·가정 교과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생들의 자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고,  $R^2=0.33$ 으로 전체변동 33%의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수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 Variable inflation factor)와 허용치를 살펴본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F=41.32$   $p<.001$ ), 자의식의 공적자기( $\beta =.58$ ,  $p<.001$ )가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의 친구 반응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중학

생은 외모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해 평상시 관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생들의 자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의적인 변수와 설명력에 대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자의식의 공적자기는 외모관리행동의 외모 가꾸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5%였다. 타인의 반응에 민감한 중학생은 수시로 거울을 본다든지 남들 앞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옷차림을 확인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주변을 의식하는 여학생은 연예인처럼 멋진 외모를 주변 친구들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청소년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가로 타인에게 비취지는 자신의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며 의복을 착용한다고 한 심정은과 고애란(1997)의 연구를 지지한다.

<표 6> 자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표준오차	$\beta$	t	VIF
외모관리행동	(상수)	1,218	.229		5,328***	
	사적자기	.01	.05	.01	.23	1.16
	공적자기	.44	.04	.58	10,24***	1.17
	사회적불안	-.01	.03	-.02	-.37	1.03
		$R^2=.33$	$F=41.32***$			

\*\*\* $p<.001$

<표 7> 자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외모관리행동 (종속변수)	자의식 (독립변수)	$\beta$	t	F	$R^2$
외모 가꾸기	사적자기	-.04	-.68	45,42***	.35
	공적자기	.62	11,09***		
	사회적불안	-.05	-.98		
성형태도	사적자기	-.17	-2,51	8,70***	.09
	공적자기	.33	5,01***		
	사회적불안	.01	-.16		
다이어트	사적자기	.02	.36	11,05***	.11
	공적자기	.30	4,61***		
	사회적불안	.13	2,04*		
건강중시	사적자기	.23	3,44***	5,58***	.05
	공적자기	.03	.42		
	사회적불안	-.08	-1,18		
식습관	사적자기	.26	3,80***	5,09***	.05
	공적자기	-.01	-.07		
	사회적불안	.04	.61		

자의식의 공적자기는 외모관리행동의 성형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9%였다. 공적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성형수술에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회보다 2회 이상 미용수술을 받은 여성은 성형 정보를 매스미디어를 통해 얻고 있다고 한 최미혜 외(2009)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즉 성형은 현대사회의 미의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성형수술을 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의식의 공적자기와 사회적 불안은 외모관리행동의 다이어트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1%였다. 다이어트는 주변에 의한 자신의 평가에 의해 형성되므로 신체에 대한 불안과 타인을 의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연예인처럼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청소년일수록 타인에 대한 불안감이 높을수록 다이어트를 하려는 의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이는 자신의 체형에 대해 관심이 있고 이를 의식하는 청소년일수록 자기 확신감이 낮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며, 체중조절 행동을 한다고 한 심정온과 고애란(1997)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자의식의 사적자기

는 외모관리행동의 건강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였다.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를 자신에게 찾는 중학생은 외모관리행동에서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건강은 자신의 내면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사적자의식이 높을수록 건강에 유익한 행동을 하려는 의도가 높다. 자의식의 사적자기는 외모관리행동의 식습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였다. 자신의 동기나 목표에 의해 식습관이 형성되고 규칙적인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외모관리행동의 하위변인인 건강증시와 식습관에서 설명력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학생 자신의 내면에는 건강과 식습관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중학생들의 의생활 실천행동

중학생들의 의생활 실천행동을 교차분석 한 결과 <표 8>과 같다. 가정에서의 일주일동안 의생활 관련 활동시간은 남학생이 1시간 미만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30분 이상~2시간 미

<표 8> 성별에 따른 의생활실천행동

의생활실천행동		성별	남학생(N=86)	여학생(N=158)	계(N=244)	$\chi^2$
의생활 활동시간	0-30분미만		31(36.0%)	40(25.3%)	71(29.1%)	5.047
	30분이상-1시간미만		29(33.7%)	49(31.0%)	78(32.0%)	
	1시간이상-2시간미만		17(19.8%)	48(30.4%)	65(26.6%)	
	2시간이상		9(10.5%)	21(13.3%)	30(12.3%)	
의생활 관심도	관심이 있는 편		51(59.3%)	137(86.7%)	188(77.0%)	23.654***
	관심이 없는 편		35(40.7%)	21(13.3%)	56(23.0%)	
의생활 단원관심	관심이 있는 편		27(31.4%)	96(60.8%)	123(50.4%)	19.208***
	관심이 없는 편		59(68.6%)	62(39.2%)	121(49.6%)	
실제생활 도움	도움이 되는 편		41(47.7%)	89(56.3%)	130(53.3%)	1.676
	도움이 되지 않는 편		45(52.3%)	69(43.7%)	114(46.7%)	
지식 습득 경로	부모		17(19.8%)	27(17.1%)	44(18.0%)	12.602**
	생활경험		37(43.0%)	59(37.3%)	96(39.3%)	
	가정과 수업		15(17.4%)	11(7.0%)	26(10.7%)	
	대중매체		17(19.8%)	61(38.6%)	78(32.0%)	
총계			86(100%)	158(100%)	244(100%)	

\*\* $p < .01$ , \*\*\* $p < .001$

만에서 높게 나타나 여학생이 의생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의생활에 대한 관심은 여학생이 '관심이 있는 편이다'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남학생은 '관심있는 편이다'와 '관심없는 편이다'에서 비슷하게 나타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의생활 관심이 있는 편이다'는 전체 연구대상 77.0%에 해당되므로 중학생은 의생활에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의생활 단원관심은 남학생이 '관심 없다'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여학생은 '관심이 있는 편이다'에서 높게 나타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전체 연구대상의 의생활 단원에 대한 관심은 '관심이 있는 편이다'와 '없는 편이다'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남학생은 '의생활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편이다'와 '되지 않는 편이다'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의생활 수업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의생활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경로가 남학생은 생활경험(43.0%)에서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대중매체(38.6%)와 생활경험(37.3%)에서 높게 나타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의생활 관심도와 의생활 단원 관심도에서 성별에서 유의성이 검증되었는데 이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의생활에 관심을 많이 가지며 수업시간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의생활 영역 중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하려는 행동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자의식이 기술·가정 교과 의생활 영역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중요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중학생들이 자신을 파악하여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외모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첫째, 중학생들의 자의식은 사적자기, 공적자기, 사회적 불안으로 나타났으며, 기술·가정 교과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중요도는 옷차림, 자기표현, 한복 우수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모관리행동은 외모가꾸기, 성형관심, 다이어트 중시, 건강중시, 식습관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균에서 보면, 중학생들은 사적자기에서 평균이 낮게 나타나 아직 이들은 자신을 알아가는 단계이므로 평가하여 뒤우치는 것을 깊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불안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은 학년이 높아지면서 사람과의 만남이 복잡해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으로 인해 평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기술·가정 교과 의생활 영역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 내용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은 아직까지 성형에 대한 집착을 보이지 않았으며 건강을 고려하여 음식을 선택하는 것에도 낮았다.

셋째, 공적자의식은 또래 친구에 의해 자아를 인식하며 의복을 착용하였을 때 전체적인 조화를 잘 이루었는지에 관심이 높으므로 교과 수업을 통해 옷차림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는 주변 친구나 매스미디어에 의한 외모 인식이 높으므로 현재 트렌드를 인지하고 있으며 기술·가정 교과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내용에 관심을 보이고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사적자의식은 자신에 대한 동기와 목표에 대해 반성하는 중학생일수록 기술·가정 교과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자신의 내면에 대한 동기나 목표를 가진 중학생들은 기술·가정 교과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내용을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사회적 불안이 낮은 중학생은 전통복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과 수업 시간에 배운 한복 바르게 입는 법을 배우려는 의도가 높았다.

넷째, 공적자의식이 높은 중학생일수록 외모가꾸기, 성형태도, 다이어트중시에서 높았으며 사적자의식이 높은 중학생일수록 건강중시, 식습관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예인처럼 멋진 외모를 연출하려는 중학생은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고 성형에도 관심이 높으며 다이어트를 하여서 멋진 몸매를 만들어 보여주기 원하였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반성하고 자신에게서 뉘그러기를 찾으려는 중학생은 멋진 몸매보다는 건강을 생각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중학생들의 의생활 실천행동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정에서 의생활 관련 활동을 더 많이 하였다. 또한 의생활 관심도와 의생

할 단원 관심도에서 성별에서 유의성이 검증되었는데 이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의생활에 관심을 많이 가지며 수업시간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의생활 영역 중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앞으로 의생활 영역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을 남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는 내용으로 교과를 개발하여 실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자신에 대한 관심의 방향이 내부로 향하는지, 외부로 향하는지,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기술·가정 교과 수업시간에 받아들이는 학습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또한 자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은 실제 자신의 경험에 의한 사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교과 학습을 설명하면 더 유익한 수업이 될 수 있다. 이때 자신에 대한 관심의 방향이 내부로 향하는지, 외부로 향하는지, 주변에 의한 불안감이 있는지에 따라 자신의 옷차림에 대해 심리적으로 파악한 후 자신의 의복에 대한 표현방법을 설명하도록 한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생각들을 옷차림으로 표현되는 것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의 자의식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교과 내용을 다루면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원하는 이상적 외모를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관리하려는 욕구가 어느 연령층보다 높으므로 사회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외모관리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연구과제는 첫째, 기술·가정①과 기술·가정② 교과 의생활 영역 내용을 비교하여 외모 관련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외모관리행동의 하위변인인 건강증시와 식습관에서 설명력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 자신의 내면에는 건강과 식습관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추후 연령층을 확대하여 청소년, 20대, 30대, 40대를 비교한 외모관리행동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대구지역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의 결과를 확대 해석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미향, 오경화. (2006). 의생활 영역에 대한 중학생의 수업만족도 및 필요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교육학회지*, 18(2), 63-77.
-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1 실과/기술·가정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 권혜림. (2008). *중학교 기술·가정교과 의생활 단원에 대한 내용분석과 학생들의 인식 및 활용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진, 강혜원. (1992). 의복 및 신체 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2), 197-209.
- 김태희, 박명자, 이지연. (2010). 중학생의 기술·가정 교과의 의생활 영역에 대한 흥미도, 활용도, 학습 요구. *복식문화연구*, 18(5), 1017-1030.
- 류현혜, 유태순. (2007). 노년 여성의 자아의식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 *복식*, 59(9), 97-109.
- 문혜경, 유태순. (2003). 자아존중감, 외모관심도와 의복태도 및 화장도에 관한 연구. *복식*, 53(4), 101-112.
- 박순자. (2007). 2007 교육과정 개정 전과 후의 실과 및 가정과 의생활 교육내용 분석. *한국가정교교육학회지*, 19(3), 37-60.
- 박은희. (2012).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의복행동과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내용 활용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50(6), 43-54.
- 박은희. (2015). 청소년의 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자아의식과 외모관리행동. *패션비즈니스학회*, 19(4), 21-36.
- 성화경. (1994). 중·고등학교 가정과목 의생활 분야 교육내용 연구-학생, 교사, 전공 교수의 요구도 분석. *한국가정교교육학회지*, 6(1), 61-72.
- 심정은, 고애란. (1997).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 조절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8), 1334-1345.
- 안효정. (2010). *2007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의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 경북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3-74.

- 위은하. (2015). 광주·전단지역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따른 신체비교, 신체만족과 외모관리행동 연구-성별과 연령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7(1), 13-29.
- 이명희. (2003). 청소년의 외모관련행동과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9/10), 1101-1111.
- 이상혁 외. (2014). *중학교 기술·가정①*. 서울: (주)미래엔
- 이애경, 이해자, 한영숙. (2006). 청소년의 의복행동과 교복만족도 및 교복변형행동.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8(3), 133-138.
- 이은실. (2011). 신체매력 지각이 건강증진행동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9(6), 47-56.
- 이은희. (2006).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라이프스타일, 외모에 대한 태도와 의복태도와의 관련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4), 85-102.
- 이은희. (2007). 청년기 여학생의 외모관련태도와 의복태도와의 관련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421-432.
- 이춘식 외. (2014). *중학교 기술·가정①*. 서울: 천재교육
- 장세미. (2008). *중·고등학생의 의생활 영역에 대한 인식, 필요도 및 실천의식*.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62.
- 전재훈, 하지수. (2008). 현대 청소년 특성이 반영된 청소년 패션에 관한 연구-2001-2006년 「SPORT&STREET」. *한국의류학회지*, 32(1), 65-76.
- 채정현 외. (2014). *중학교 기술·가정①*. 서울: (주)삼양미디어
- 최나영. (2012). 여고생들의 연예인 모방유형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교복변형, 헤어스타일, 화장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2(6), 764-773.
- 최미혜, 김경희, 김주덕. (2009). 여성의 자기의식, 신체이미지가 반복되는 미용수술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 15(2), 649-661.
- 한준상, 이춘화, 윤옥경. (2000).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Cruickshank, W. M. (1971). *Psychology of exceptional children and youth*.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4), 522-527.
- Hurlock, E. (1976). *The psychology of dress: An analysis of fashion and its motive*. New York: Arno Press.
- Kaiser, S.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2d ed.). New York: Macmillan.
- Miller, F. G., Davis, L. L., & Rowold, K. L. (1982). Public self-consciousness, social anxiety and attitudes toward the use of clothing.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0, 363-368.
- Pertschuk, M. (1991). Psychological considerations in interface surgery. *Clinics in Plastic Surgery*, 18(1), 11-18.
- Smith, T. W., Ingram, R. E., & Brehm, S. S. (1983). Social anxiety, anxious self-preoccupation, and recall of self-relevant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6), 1276-1283.
- Steinberg, L. (1993). *Adolescence*. New York: McGraw Hill.